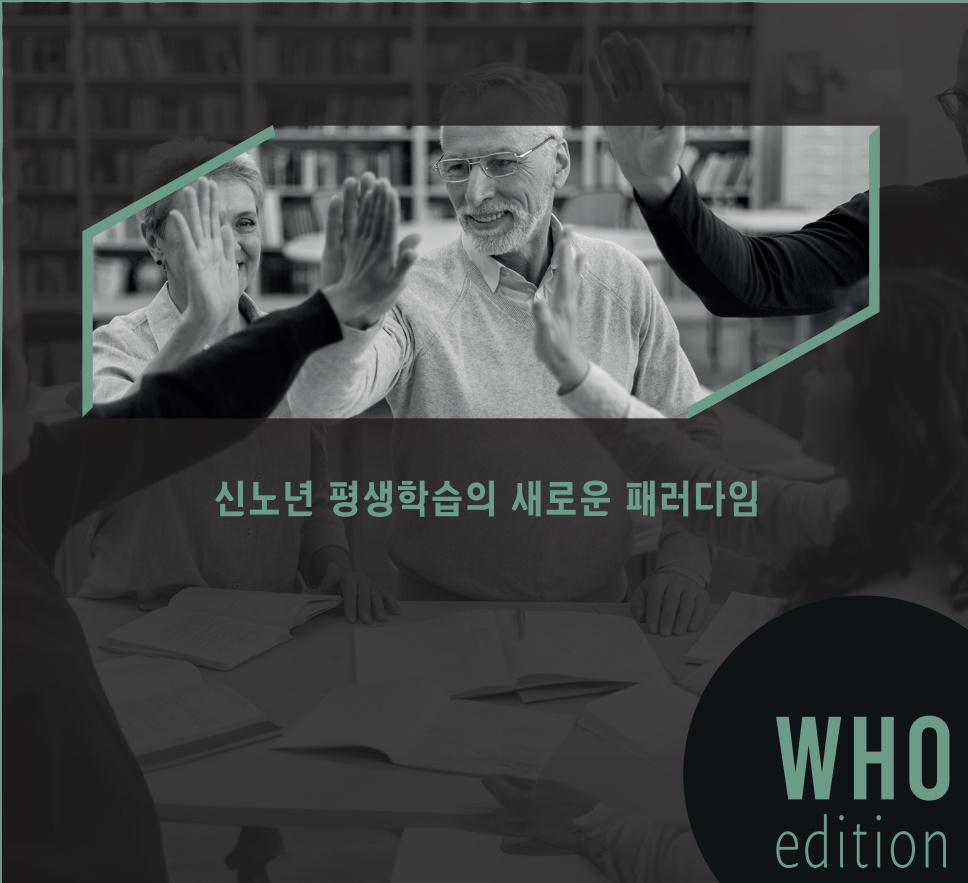


2024 서울평생학습 이슈포커스 Vol.6

ISSUE FOCUS



신노년 평생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

WHO
edition

ISSUE FOCUS

신노년 평생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

ISSUE



- >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년기가 연장되었다.
- > 신노년은 누구이며, 어떤 특징이 있는가?
- > 높은 교육 수준과 경제력을 갖춘 신노년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인구 고령화는 사회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보건의료 환경이 개선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 되었다. 2024년 8월 기준, 서울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179만 명(서울 전체 인구의 19.1%)으로 서울도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었다. 사회 발전과 함께 나이 든 요즘 노년층은 과거와 달리 높은 교육 수준, 경제력,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을 가지고 있어 '신노년층'으로 구분된다. 이번 이슈포커스에서는 서울 신노년의 실태와 특징을 살펴보고 신노년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통계청에서 분류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 뒤에는 1955년~1974년 사이 ‘베이비붐’ 기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들의 노화에 따른 ‘시니어붐’이 중요한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서울의 베이비부머는 서울 인구의 30.11%를 차지하며, 이들 중 이미 65세를 넘긴 베이비부머 고령인구는 624,356명으로 서울 인구의 6.67% 그리고 서울시 고령인구의 34.96%를 차지한다. 한편, 높은 교육수준, 많은 자산, 풍부한 사회경험, 디지털 역량 등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 등에서 기존의 노년층과는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6070세대를 ‘신노년’이라 부를 수 있다. 기존의 노년층과는 다른 욕구와 특성을 지닌 신노년의 등장은 향후 노인복지는 물론이고 노인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인구 고령화, 늙어가는 사회와 개인들

사회 발전에 따른 인구 고령화, 그에 따른 사회 문제

인구 고령화는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인구 구성에서 노년인구(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현상”(두산백과)으로 정의되지만, 사실은 단순히 ‘노년인구 혹은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만이 아닌, 훨씬 더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진행되는 인구현상임. 인구 고령화는 사회의 병리적 현상이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임. 인간이 태어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사회 역시 점차 성장하고 발전하여 안정을 유지하게 됨. 사회가 경제·정치·사회적으로 안정되면 복지가 확대되고 보건 의료 환경이 개선되어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며, 자연스럽게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인구 고령화로 이어짐.

인구 고령화는 다가올 미래의 변화가 아니라 이미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자 현재 진행 중인 변화임. 2024년 8월 우리나라 주민등록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9.6%로, 통계청이 분류하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음(국가통계포털, 2024. 9. 28. 인출). 인구 고령화가 가져오는 노후빈곤과 소득절벽, 사회적·개인적 노인 부양부담 증가, 치료·간병·요양 비용 증가, 생산인력 부족, 성장동력 둔화 등의 문제들은 현재의 노인만이 아니라 언젠가는 노인이 될 우리 모두와 관련된 문제임. 또한 노인들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인구 변화의 방향과 속도 혹은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빚나간 예측, 준비 부족, 잘못된 대응의 결과로 만들어진 문제임.

인생에서 연장된 노년기의 중요성

과거에는 선택 받은 일부 사람들만 누릴 수 있었던 ‘장수’가 기대수명의 연장에 따라 모두에게 허락된 보편의 권리이자 삶의 기본조건이 되었으며, 누구나 경험하는 ‘노화과정’과 모두가 살아내야 하는 ‘노년기’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게 되었음. 기대수명의 연장은 단순히 생애시간 자체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기간 중에서도 특별히 노년의 기간의 연장을 의미함. 60세이던 기대수명이 20년 더 연장되어 80세가 된다고 해서 우리 삶에서 20대나 30대 청춘의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70대나 80대의 노년기를 갖게 되는 것임. 결국 우리의 생애 시간에서 노인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어지게 되는 셈임.

또한 노년기의 연장은 단순히 양적인 시간의 연장을 넘어 우리 삶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의미와 중요성의 증가를 의미함. 인생의 1/5인 노년기보다는 인생의 1/3, 1/2을 차지하는 노년기가 우리 삶에서 갖는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할 수밖에 없음. 특히 노년기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로서 삶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 삶 전체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임. 요컨대, 인구 고령화는 사회적으로 고령인구 비중의 증가와 노년기의 연장을 통하여 사회 속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의미와 인생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가치를 더 무겁게 변화시키고 있음.

길어지는 노년기, 모두가 다른 노년기



노년기의 시작은 몇 세부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통일된 노인 연령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노인복지법」제1조의 2(정의)에서조차 ‘노인’의 연령을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제3장 보건·복지조치에서 생업지원, 건강진단, 경로우대 등의 노인 혜택과 관련하여 그 대상을 “65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9조의 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에서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규정하고 있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기준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노인의 기준연령이 65세로 통일된 것이 아님을 보여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 9. 10. 인출).

그만큼 ‘노인’은 한 마디로 규정하기 어려운 존재임을 시사함.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등 다른 생애주기와 달리, 노년기의 기준을 명확하기 정의해내기 어려운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음.

첫째 노년기는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뿐 아니라 끝이 어디인지를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임. 영아기는 생후 2년이면 끝나고, 유아기는 3세부터 5세까지이며, 아동기는 6세에서 12세, 청소년기는 13세에서 19세, 성년기는 20세에서 39세, 중년기는 40세에서 59세로 기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음. 반면, 노년기는 60세 또는 65세에 시작되지만 그 끝은 정해져 있지 않음. 또한 다른 생애주기는 짧게는 2년부터 길게는 20년 정도지만, 노년기는 현재의 기대수명에 기준하더라도 25년 이상에 이르는 긴 기간 이어서 노년기를 정의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음.

두 번째 이유는 노년기는 생애 중 가장 마지막 시기이자 오랜 시간 삶의 결과로서 노년기 안에서도 개인차가 너무 크기 때문임. 출생 당시 타고난 유전적인 차이에 살아온 시간만큼의 환경, 학습, 경험, 습관, 노력 등의 차이가 합쳐진 결과가 바로 노년의 모습임. 따라서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연대기적·생물학적 연령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어서 연령집단 내의 유사성은 축소되는 반면, 집단 내의 개인별 차이는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같은 노년기 안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나 개인이 처한 환경적 요인 등에 따라 커다란 개인차를 보이게 되며 그만큼 노년기를 정의 내리기는 어려움.

우리나라 노년세대의 중심, 베이비부머

세계 공통 현상으로 나타나는 베이비붐

‘베이비붐(baby-boom)’이란, 아기를 갖고 싶어 하는 어떤 시기의 공동된 사회적 경향으로 인하여 출생률 또는 출생아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베이비붐은 큰 전쟁이나 장기적인 경기불황 등과 같은 커다란 사회적·경제적 혼란이나 위기가 발생하고 난 뒤, 그 혼란이 수습되고 사회가 안정을 되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함. 즉, 혼란과 위기로부터 무사히 벗어났다는 안도감, 무너진 사회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사회재건의 의지, 그리고 흩어졌던 가족의 재상봉 등으로 그동안 미뤄두었던 결혼과 출산이 증가함에 따라 출생률이 빠르게 회복되는 것임.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붐이 일어났던 가장 최근의 시기는 2차 세계대전 직후임.

국가마다 베이비부머를 규정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종전 직후인 1946년부터 1964년까지 약 19년에 걸쳐 출생한 인구집단을 베이비부머로 정의하고 있으며, 독일은 1954년부터 1969년에 걸친 16년 동안 출생한 집단을 베이비부머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베이비부머’라는 용어 보다는, 출생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1947년부터 1949년까지 3년 동안에 출생한 인구만을 가리켜 일본어로 ‘덩어리’라는 뜻을 가진 ‘단카이(團塊)’를 붙여 ‘단카이 세대’라는 개념을 쓰고 있음 (한정란, 2015).

한국전쟁으로 다소 늦은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한편, 우리나라의 베이비붐은 다른 나라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 침략의 최대 피해자였을 뿐 아니라 그 상흔이 아물기도 전에 다시 한국전쟁의 비극을 맞이하여 다른 참전국들에 비해 회복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음. 그 결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10년 가까이 늦은 1955년 처음으로 총 출생아 수가 90만 명대로 급증하고 합계출산율은 6.33명을 기록하면서 베이비붐이 시작되었음. 이후 1960년에는 1,080,535명으로 최다 출생아 수를 기록하였고, 합계출산율 역시 6.16명을 유지했으며, 그 결과 전체 인구수도 처음으로 2,500만 명을 넘어섰음. 그러나 1974년을 끝으로 출생아 수는 9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합계출산율도 3.0명 아래로 떨어짐으로써 베이비붐이 종결되었음.

베이비부머 인구층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는데, 최근까지도 통계청에서는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급증했던 1955년~1963년 사이에 출생한 이들을 ‘1차 베이비부머’로, 그리고 잠시 출생아 수가 줄었던 1964년~1967년까지를 제외하고 다시 출생아 수가 증가한 1968년~1974년생을 ‘2차 베이비부머’로 규정해 왔음. 연 출생아 수 90만 명 이상이며 합계출산율 3.5명 이상이었던 1955년~1974년 사이에 출생한 인구 전체를 베이비부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김태현, 2010; 한정란, 2011)에 입각하여 1955년생부터 1974년생 까지를 베이비부머를 정의하는 것이 타당함.

베이비부머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노년기, 신노년

베이비 붐에서 시니어 붐으로

1955년에서 1974년 사이 20년에 걸쳐 출생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을 차지하는 거대 인구 집단인 이들 베이비부머(baby-boomer)들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노년의 문턱을 넘어 시니어부머(senior-boomer)의 부메랑이 되어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음.

거대집단 베이비부머들이 생애주기를 따라 이동함으로써 전해지는 사회적 충격은 매우 큼. 이들이 학령기에 진입하면서 ‘콩나물 교실’, ‘2부제 수업’이 유행했고, 결혼적령기에 들어서면서 주택난이 시작되었으며, 이제 이들의 노동시장 퇴장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노후 보장 문제가 주목받고 있음(이삼식, 2024. 7. 28.). 1955년생 만형들을 필두로 직장을 떠나 각자의 지역사회로 밀려들어오고 있는 시니어부머들 즉 ‘신노년층’을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이고 안착시킬 것인가는 향후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임.

2024년 8월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는 총 2,816,683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의 30.11%에 이르며, 이들 중 65세를 넘긴 1955년생부터 1959년생까지의 베이비부머 고령인구는 624,356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의 6.67% 그리고 서울시 고령인구의 34.96%를 차지함(국가통계포털, 2024.09.21. 인출). 이와 같은 서울시의 고령인구 비율은 시니어붐과 더불어 현재의 19.1%에서 2030년 24.2%, 2040년 32.4%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노년의 다양성과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신노년층

한편, 최근 높은 교육수준과 자산을 보유하고(민주홍, 김주현, 한경혜, 2017), 디지털 역량까지 갖춘(김미령, 권순재, 박충선, 2012; 임정훈, 이혁준, 이지훈, 2020) 베이비부머들이 노년기로 진입하면서, 이들을 기존 노년층과 차별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음. 대표적으로 기존의 노년기 집단을 가리키던 ‘노인’이나 ‘어르신’이라는 호칭을 대신하여 ‘신중년’,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뉴시니어(new senior)’, ‘신노년’ 등 다양한 용어들로 그들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다양한 용어들 중에서 ‘신노년’을 선택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음. 우선,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나 ‘뉴시니어(new senior)’ 등 외국어 표현보다는 ‘신중년’이나 ‘신노년’ 같은 우리말 표현이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임. 또한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에서 ‘액티브(active)’란 건강을 전제로 한 활동성을 강조함으로써 노화에 따른 자연적인 건강의 상실이나 비활동성 혹은 취약한 위치에 있는 노인들을 현실을 배제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또한 ‘신중년’은 40세에서 60세를 전후한 시기를 일컫는 중년기를 노년기로까지 확장시킴으로써 중년층 내에서의 연령에 따른 개인차를 고려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음. 이에, 노년의 다양한 모습을 인정하고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노년층의 등장을 의미하는 ‘신노년’이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6070을 표현하는 데 가장 적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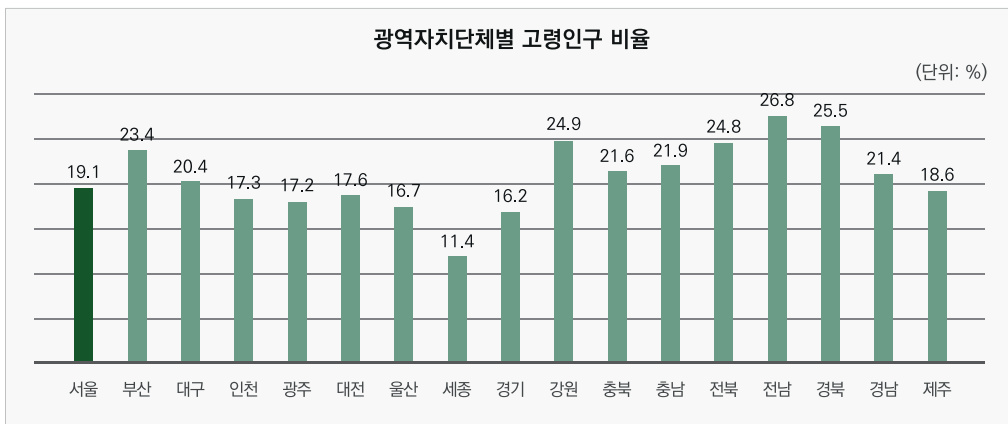
서울의 고령화, 그리고 신노년의 특징

2024년 8월 기준 서울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785,874명으로 서울시 인구의 19.1%를 차지하며, 그중에서도 6070세대는 서울시 인구의 22.28%를 차지하는 거대 인구집단이다. 자치구 중에서는 고령인구가 송파구에 가장 많이 살고 중구에 가장 적게 살며, 자치구 인구 대비 비율로는 강북구가 가장 높고 마포구가 가장 낮다. 교육수준은 고졸(60대 45.59%, 70대 29.26%)의 비율이 가장 높아서, 37.69%가 초졸 학력인 80세 이상에 비해 월등히 높다. 특히, 베이비부머 노년층(1955년~1957년생) 중에는 55.8%가 고졸이며, 이들은 스마트폰 사용률 또한 97.3%로 전체 서울노인 평균(83.7%)보다 디지털 역량 면에서도 앞서 있다.

초고령 사회 문턱에 선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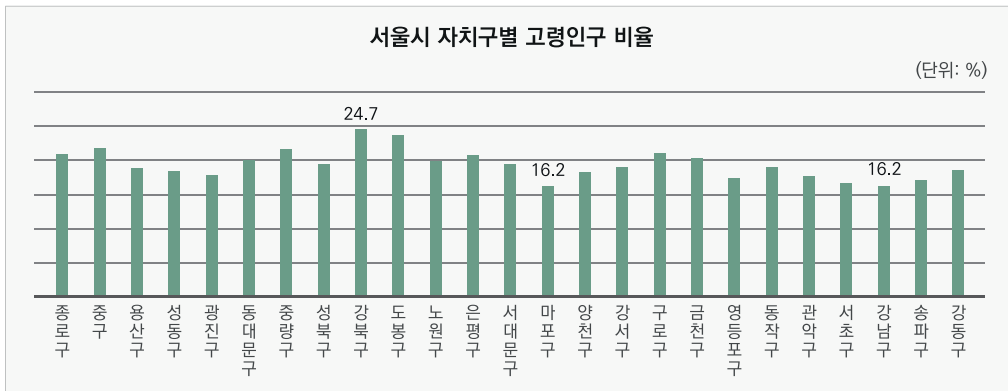
서울의 고령화

2024년 8월 기준, 서울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785,874명으로 전체 서울 인구의 19.1%를 차지함. 이는 전국 평균(19.6%)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열 번째로 높은 고령인구 비율임. 16.2%인 경기도나 11.4%인 세종시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젊은 도시 서울의 이미지는 과거의 추억이 된지 오래임.



*출처: 국가통계포털(주민등록인구현황), 2024. 9. 24. 인출

서울에서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북구로 24.7%이며, 가장 고령인구 비율이 낮은 자치구는 마포구와 강남구로 각각 16.2%임. 또 수적으로 고령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송파구로 112,193명의 노인이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중구는 26,193명으로 가장 적은 노인이 거주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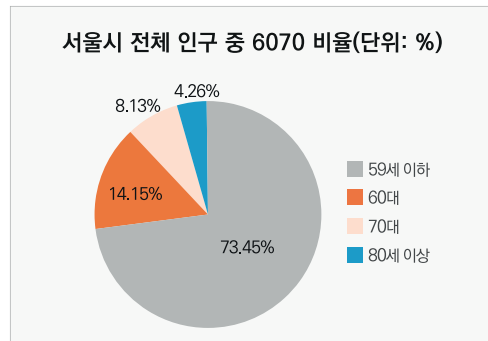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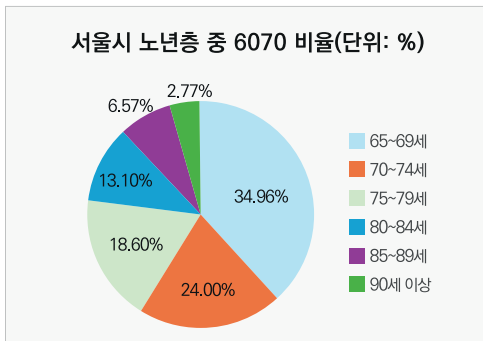
*출처: 국가통계포털(주민등록인구현황), 2024. 9. 24. 인출

서울의 6070세대 신노년층

서울의 6070 인구 비율

한편 서울시 노년층의 연령별 구성을 살펴보면, 65~69세가 34.96%로 가장 많고, 70~74세 24.00%, 75~79세 18.60%, 80~84세 13.10%, 85~89세 6.57%, 90세 이상 2.77%의 순으로, 베이비부머가 속한 6070세대가 77.56%로 서울시 노년층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함.

서울시 전체 인구 대비 6070세대는 각각 14.15%와 8.13%로 총 22.28%를 차지하는 거대 인구집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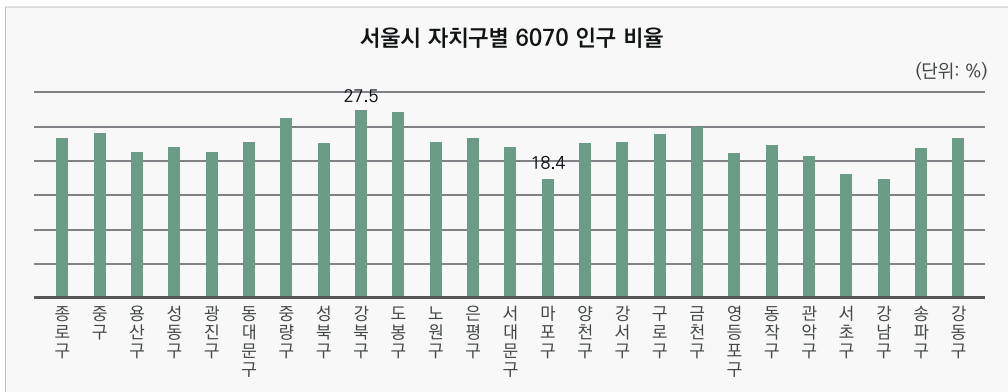


*출처: 국가통계포털(주민등록인구현황), 2024. 9. 24. 인출

서울의 자치구별 6070 인구 비율

서울의 자치구별 6070세대 비율은 강북구가 27.52%로 가장 높고 도봉구(27.36%), 중랑구(25.87%), 금천구(24.93%), 구로구(24.23%), 중구(24.02%), 은평구(23.79%) 등의 순임. 반면, 마포구(18.44%)가 6070의 비율이 가장 낮고, 강남구(18.82%), 서초구(19.20%), 관악구(19.20%), 영등포구(20.85%), 광진구(21.06%), 송파구(21.25%), 용산구(21.30%), 서대문구(21.63%) 등의 순임.

인구 수로는 송파구에 가장 많은 6070세대가 살고(60대 89,915명, 70대 48,571명), 중구에 가장 적은 6070세대가 살고 있음(60대 18,460명, 70대 10,712명).



*출처: 국가통계포털(주민등록인구현황), 2024. 9. 24. 인출

높은 교육 수준과 디지털 활용 능력을 갖춘 신노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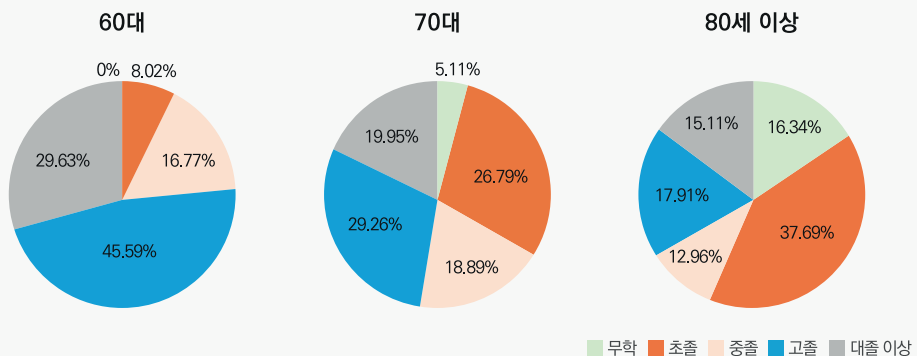


서울시 신노년층의 교육 및 경제 수준

서울시 6070 신노년층의 교육 수준은 고졸이 가장 많아서 60대 중 45.59%와 70대 중 29.26%가 고졸임. 60대는 고졸 45.59%, 대졸 이상 29.63%, 중졸 16.77%, 초졸 8.02% 순이며, 70대는 고졸 29.26%, 초졸 26.79%, 대졸 이상 19.95%, 중졸 18.89%, 무학 5.11% 순임. 80세 이상에서 초졸이 37.69%, 고졸 17.91%, 무학 16.34%, 대졸 이상 15.11%, 중졸 12.96%인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교육 수준임을 알 수 있음.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서울시복지재단, 2023)에 따르면, 신노년의 합세로 서울노인의 소득수준도 향상되었는데, 2022년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72.1만 원으로, 2018년 당시 253.7만 원에 비해 향상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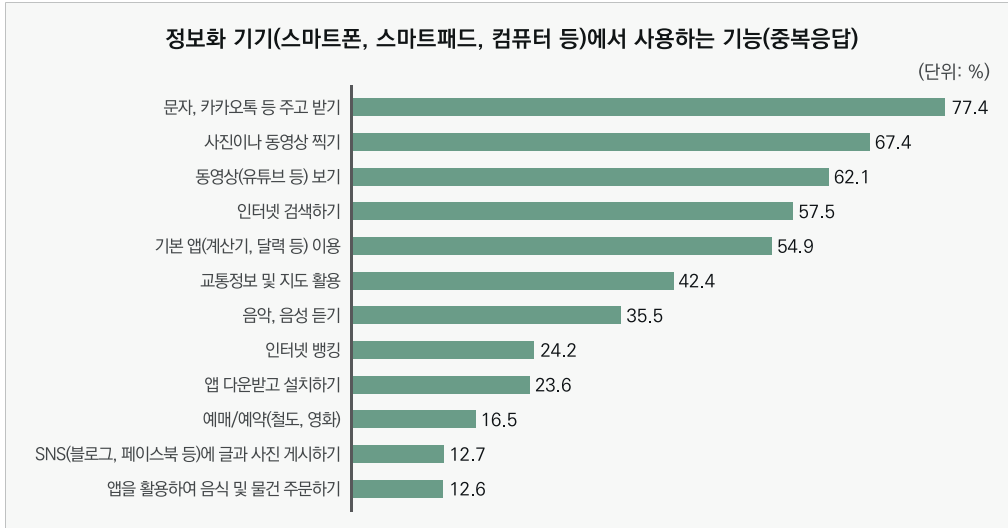
서울시 연령별 교육수준(단위: %)



*출처: 국가통계포털(주민등록인구현황), 2024. 9. 24. 인출

서울 신노년층의 정보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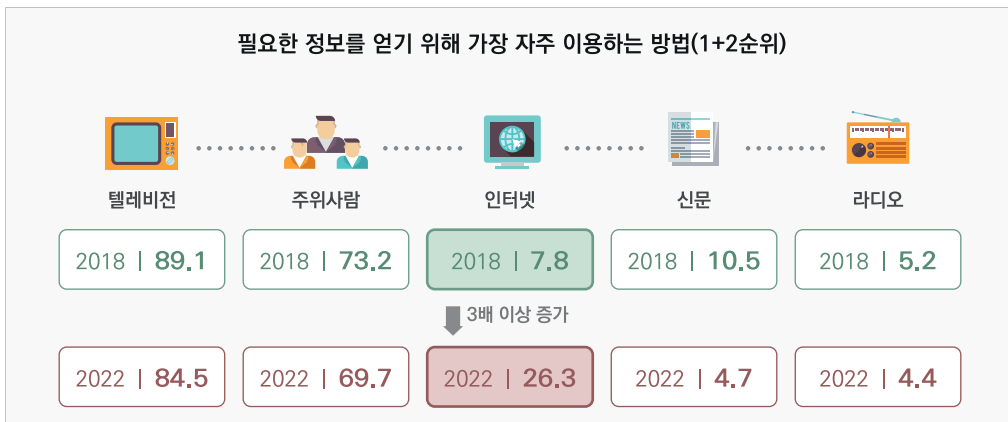
서울 노인 전체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83.7%인 반면, 베이비붐 세대(1955년~1957년생) 노인들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97.3%로 이들은 기존 노년층에 비해 높은 디지털 역량을 지님. 서울 노인의 21.4%는 컴퓨터, 20.8%는 키오스크를 사용하며, 77.4%는 정보화기기로 문자나 카카오톡을 주고 받고, 67.4%는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으며, 62.1%는 동영상을 봄.



*출처: 서울시복지재단(2023),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서울 노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방법은 TV(84.5%), 주위 사람(69.7%), 인터넷(26.3%) 순이었으며, 그 중 베이비붐 세대(1955년~1957년생)는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가장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이 50.1%로 전체 노인 평균의 거의 두 배에 가까웠음.

요컨대, 서울의 신노년층들이 노년층으로 진입함에 따라 서울의 노년층 특성도 변하고 있음.



*출처: 서울시복지재단(2023),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서울 신노년 평생교육을 위한 제안

높은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다양한 취미 및 여가생활과 건강관리에 적극적인 신노년층의 특성과 신노년층 내 다양성을 고려할 때, 향후 신노년 평생교육은 양적 확대뿐 아니라 복지 중심의 교육으로부터 벗어나 질적으로도 다양화 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고령사회에서는 특정 지식이나 기술 혹은 특정 영역에 국한된 내용에 기초한 교육과정이 아니라, 노년기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중심의 신노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과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노인 평생교육 인력의 전문성 강화, 신노년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등 실천적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전생애 발달적 관점에서의 신노년 평생교육의 필요성



베이비붐세대의 노화에 따른 새로운 노인 평생교육 수요 증가

베이비붐세대는 기존 노년층에 비해 높은 교육수준과 자산을 보유하고(민주홍, 김주현, 한경혜, 2017), 높은 디지털 역량이 지님(임정훈, 이혁준, 이지훈, 2020). 또한 이들은 높은 교육수준과 사회참여의 경험을 바탕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욕구를 보일 것으로 예측됨(원영희, 한정란, 2012).

베이비붐세대 노인들은 주체적인 삶의 태도를 지니고 노후 준비를 위해 노력하며, 금전적 소득 외에 자기효능감 향상, 무료함 해소, 건강 유지 등 다양한 가치를 노동의 대가로 기대함. 또한 체계적이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바탕으로 다양한 취미 및 여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관리하며, 자녀에게 노후 부양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가족 밖에서 노후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는 등 다양한 면에서 이전 노인세대와는 차별화됨(임예진 외, 2024).

따라서 이러한 베이비붐세대를 중심으로 한 신노년층의 특성과 신노년층 내 다양성을 고려하여, 향후 노인 평생교육은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다양화 되어야 함.

복지 중심 노인 평생교육의 한계

그동안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은 전생애를 포괄하는 ‘평생’의 의미를 망각한 채, 주로 성인기 학습자 중심의 직업진로 교육에 집중되어 왔음. 특히, 생애 후반부인 고령층은 평생교육 속에서의 ‘학습자’보다는 돌봄과 서비스 대상인 노인복지의 ‘수혜자’로 인식되어 왔음.

고령자를 저소득, 저학력, 저지위의 소외계층으로 규정하고, 저소득층 중심의 노인복지서비스나 소득보전 위주의 노인일자리사업, 취미여가 중심의 프로그램에 치중함으로써(한정란 외, 2009) 결과적으로 노인 평생교육은 시혜적인 여가중심 활동으로 변질되어 왔음.

그러나 베이비부머의 고령화 및 인구절벽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일자리와 여가 중심의 복지적 접근을 넘어서, 전생애 발달적 관점에 기초한 노년기 잠재력 개발, 주체성 향상, 노인의 지식과 자원을 활용한 생산적 공헌 등 노인의 성장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노인 평생교육적 접근이 강화되어야 함(최수연, 최일선, 2022).

내용중심 교육에서 역량중심 교육으로

역량이란?

역량이란 성공적인 삶과 관련된 심리적 그리고 행동적 특성이자 상황에 자발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며(McClelland, 1973), 고정된 지식이나 불변적인 내재적 특질이 아니라 상황과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행동의 조합임(손의성, 한정란, 전수경, 2018).

역량 중에서도 모든 개인에게 필요한 역량, 즉 다양한 삶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역량을 ‘핵심역량’이라 하며(Rychen & Salganik, 2003), 핵심역량의 조건은 4가지로 ① 다기능성: 상이한 상황에 걸쳐서 유용하게 기능할 수 있어야 함 ② 고차정신능력: 삶에 대해 적극적이고 반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신적 자율성, 추상적 사고, 자기반성, 객관적 사고를 지녀야 함 ③ 다분야 관련성: 학교, 직업, 가정, 정치, 도래 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참여와 자아실현과 관련되어야 함 ④ 다차원성: 노하우(know-how), 분석적·비판적 의사소통 기술, 상식을 포함한 다양한 정신적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다차원적인 특성을 가져야 함.

신노년에 필요한 8가지 핵심역량

급변하는 고령사회에서는 노인 평생교육 역시 노년기에 필요한 특정 지식이나 기술 혹은 특정 영역에 국한된 내용에 기초한 교육과정이 아니라, 노년기에 필요한 핵심적인 역량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함(손의성 외, 2018).

손의성 외(2018)는 노년기 핵심역량으로 노화적응 역량, 자기계발 역량, 사회변화 적응 역량, 사회참여 역량, 심미적 역량, 자아통합 역량 등 6가지를 제시하였으며, 조대연 외(2020)는 한국 성인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역량과 생애주기별 및 삶의 영역별로 필요한 역량을 도출하는 연구를 통하여 건강관리, 대인관계, 윤리, 시민, 의사소통, 정서조절, 자기계발, 디지털, 공감, 문해력, 문화예술 등을 포함한 20개의 성인역량을 도출함.

한정란, 전수경, 김은상(2024)은 선행연구(손의성 외, 2018; 조대연 외, 2020)와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여 서울의 신노년층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으로 다음 8가지 핵심역량을 제안함.

신노년 평생교육 핵심역량

핵심 역량	역량의 정의	하위 역량
노화적응 역량	노년기 특징과 노화를 이해하고, 노화과정에 긍정적으로 적응함으로써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신체적, 인지·정서적, 사회적 노화적응 역량 등
사회변화 적응역량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사회 변화 및 기술 발전에 적응함으로써 실생활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수용 역량 등
자기계발 역량	다양한 활동과 학습을 통하여 여가를 활용하고 잠재력을 계발함으로써 노년기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생애설계, 시간관리, 취미 개발 역량 등
대인관계 역량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관리·유지·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타인 이해 및 공감, 대인 관계 관리, 의사소통 역량 등
문해 역량	문자적 문해 뿐 아니라 기술 진보에 따른 새로운 정보 수단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실용적 문해력을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생활에 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읽기, 쓰기, 말하기, 생활 문해 역량 등
시민 역량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감 및 주인의식을 가지고 후배 시민들과 연대하여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와 후세대에 공헌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시민의식, 지역사회 이해, 세계시민의식 역량 등
문화예술 역량	인문학적 소양과 문화예술 이해를 통하여 미적 가치를 표현·향유·감상·비평하고 감수성과 정서적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인문학, 문화예술 향유 및 감상 역량 등
영성 역량	육체와 영혼, 이성과 감정 등 이분법적인 구분에서 초월하여 총체적인 인생의 의미를 통합하고, 삶의 근원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영적 성장을 이루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자아정체성, 자아통합, 죽음준비 역량 등

지역사회 중심 신노년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서울시 신노년 평생교육의 기본방향

서울시 신노년 평생교육의 기본방향은 넓게는 서울, 좁게는 자치구, 더 좁게는 마을 단위의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신노년 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을 통하여 평생학습을 통하여 이전까지 일과 직장이 중심이었던 삶의 무대를 실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로 옮겨 성공적으로 적응함으로써 노년기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삶의 경험과 경력으로부터 얻은 신노년의 연륜과 지혜를 지역사회 및 다음 세대와 나눔으로써 신노년 세대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임.

지역사회 중심의 서울시 신노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첫째, [평생교육법] 개정에 대응한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 기준 및 규정을 담은 [서울특별시 노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칭)] 제정

둘째, 조례를 통하여 '노인교실'의 실제 사용 명칭인 '노인대학 등'으로 되돌리고, 노인대학 등을 '노인평생교육시설'로 편입

셋째, 학령인구 감소로 증가하는 폐교를 고령층의 평생교육 및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신노년 평생교육 및 복지를 위한 시설 확충에 활용

넷째,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을 현재의 직접적인 교육 제공 기능에서 중앙정부의 평생교육정책이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 실제 구현되도록 연계하고 광역 서울시 수준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중추적 평생교육 정책 및 연구개발 기관으로 전환

지역사회 중심의 서울시 신노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개선방안

첫째,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실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울형 신노년 평생교육의 표준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과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 또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평가척도, 그리고 교육자료 등을 개발하여 현장에 지속적으로 제공

둘째, 인력의 질이 곧 교육의 질을 결정함을 감안하여 노인 평생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인력의 전문성 강화. 대규모 노인교실부터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사 배치를 지원하고, 노인 복지관의 인력배치기준에 '평생교육사' 자격 소지자의 의무 고용을 추가하며, 현장 인력에 대한 '노인평생교육 전문가 과정' 제공

셋째, 향후 신노년 평생교육은 가르치는 교육에서 배우는 학습으로, 수동적인 교육에서 능동적인 참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신노년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매뉴얼을 개발·제공하고, 학습공간, 정보 등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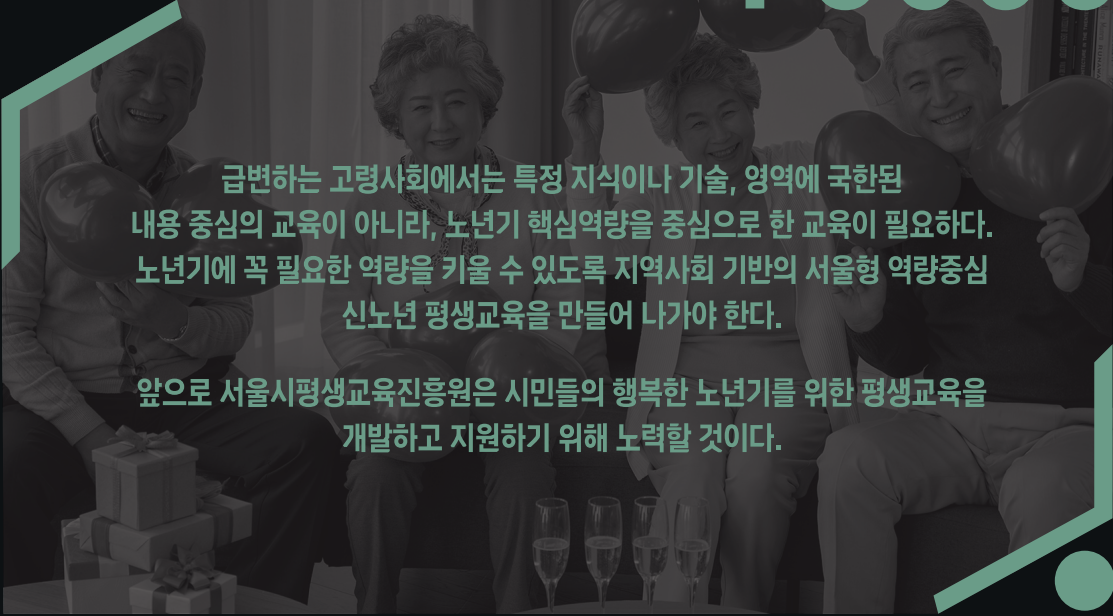
초고령사회 서울, 시니어봄에 대비한 지역사회 기반 역량 중심 신노년 평생학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인구 고령화는 단순히 ‘노년인구 혹은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만이 아닌, 사회 전체와 개인 삶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인구현상이다. 인구 고령화는 고령인구의 양적 증가뿐 아니라 기대수명과 노년기의 연장으로 인해 사회 속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의미와 노년기가 인생에서 차지하는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시점에 우리가 6070세대 신노년층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 세대가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진 연령층으로 현재 우리 사회의 인구 고령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미래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베이비부머 인구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서울시의 고령인구 비율은 19.1%로, 특히 6070세대는 서울시 전체 인구의 22.28%를 차지하는 거대 인구집단이다. 서울의 6070세대 신노년층은 송파구에 가장 많이 살고 중구에 가장 적게 살며, 비율로는 강북구가 가장 높고 마포구가 가장 낮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가장 많아 80세 이상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그중에서도 베이비부머 노년층은 절반 이상이 고졸이고, 97.3%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이러한 신노년층의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급변하는 고령사회에서 신노년 평생교육은 노년기에 필요한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에 한정란, 전수경, 김은상(2024)은 서울 신노년 핵심역량으로 노화적응 역량, 사회변화적응 역량, 자기계발 역량, 대인관계 역량, 문해 역량, 시민 역량, 문화예술 역량, 영성 역량 등 여덟 가지를 제안했다.

서울형 신노년 평생교육은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신노년 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을 통하여 평생학습을 통하여 일과 직장이 중심이었던 삶의 무대를 지역사회로 옮겨 노년기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고, 삶의 경험과 경력으로부터 얻은 신노년의 연륜과 지혜를 지역사회 및 다음 세대와 나눔으로써 신노년 세대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노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칭)] 제정 등 법적·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역량 중심 서울형 신노년 평생교육 교육과정 개발 등 실천적 개선이 필요하다.

FOCUS



급변하는 고령사회에서는 특정 지식이나 기술, 영역에 국한된 내용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노년기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 노년기에 꼭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서울형 역량중심 신노년 평생교육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시민들의 행복한 노년기를 위한 평생교육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서울평생학습 이슈포커스 소개

서울평생학습 이슈포커스는 주목할만한 평생학습 이슈를 선정하여 WHERE, WHO, WHAT, HOW, WHY 5가지 카테고리로, 평생학습이 우리 주변 어디서 이뤄지고 있는지 현황과 현황을 보여주고, 앞으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를 제안합니다.

※위 자료는 <신노년층 맞춤형 교육과정 및 운영체제 개발 연구(한정란, 전수경, 김은상, 2024)> 및 정책팀 내부 연구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집필 : 한정란 교수(한서대학교)

기획/편집 : 이은주, 정미란(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정책팀)

참고문헌

- 김미령, 권순재, 박충선. (2012). 베이비붐세대의 정보활용이 정보화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57, 113-136.
- 김태한. (2010). 우리나라 인구전개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의미. 연금포럼, 37, 4-11.
- 민주홍, 김주현, 한경혜. (2017). 결혼과 출산 전이시기가 생애후기 은퇴관련 계획에 미치는 영향: 베이비붐 세대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인구학, 40(4), 25-53.
- 서울시복지재단. (2023).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서울시복지재단.
- 손의성, 한정란, 전수경. (2018). 고령사회 인생3모작 설계를 위한 노인교실(노인대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 원영희, 한정란. (2012). 교육복지 관점에서 본 노년기 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평생교육학연구, 18(4), 239-263.
- 이삼식. (2024.07.28.). [이삼식칼럼] 인구위기와 베이비붐세대 딜레마. 세계일보.
- 임예진, 김동하, 조영태, 유승현, 이창숙, 하정화, 고우림. (2024). 도시 중산층 이상 베이비붐 1세대의 노년기 성향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인구학, 47(1), 41-72.
- 임정훈, 이혁준, 이지훈. (2020). 장·노년층의 디지털 정보격차 영향요인: 베이비붐 세대와 노인세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9), 475-485.
- 조대연, 정홍인, 김대영. (2020). 미래사회 성인역량 탐색과 평생교육 정책을 위한 시사점. 고려대학교 HRD정책연구소.
- 최수연, 최일선. (2022). 노년기 교육요구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로서 McClusky 노년교육요구의 적용 타당성 탐구. 노년교육연구 8(2), 25-49.
- 한정란. (2011). 베이비부머의 성공적 노후적응을 위한 교회의 과제. 살롬복지원 세미나 발표자료집, 1-23.
- 한정란. (2015). 노인교육론. 서울: 학지사.
- 한정란, 원영희, 박성희, 최일선. (2009). 중년층과 노년층의 노인교육 요구. 평생교육학연구, 15(4), 131-161.
- 한정란, 전수경, 김은상. (2024). 신노년층 맞춤형 교육과정 및 운영체제 개발 연구. 서울: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 McClelland, D. C. (1973).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1), 1-14.
- Rychen, D. S., & Salganik, L. H. (2003). Highlights from the OECD Project Definition and Selection Competencies: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s (DeSeCo).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law.go.kr>>에서 2024년 9월 10일 검색
- 국가통계포털 : <<https://kosis.kr/index/index.do>>에서 2024년 9월 24일 검색
- 두산백과 : <<https://www.doopedia.co.kr/>>에서 2024년 9월 15일 검색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SEOUL LIFELONG EDUCATION INSTITUTE